화학연구원, 중소기업에 문호 개방

중소기업 입주시켜 연구역량 강화 목표 ... 기획에서 공동연구까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재현)이 화학분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연구원은 12월1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부설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본원에는 부흥산업, 녹스탑을, 울산지원에는 대림화학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화학연구원은 기존 연구진을 파견해 기술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연구원 내에 인력·장비 및 시설 등 연구 인프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전담멘토를 지정하고 연구과제 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공동 연구,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화학연구원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애로기술 위주의 단편적 지원, 상용화 지원 부족, 근거리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화학연구원장은 “국내 화학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이 정체돼 있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화학기업 3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10>